

## 타자와의 조우: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과 분단체제의 현실 이해\*

모춘흥\*\* · 이상원\*\*\*

###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타자중심적 철학을 기반으로 분단의 현실 속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본고는 고정적 체계논리와 남한 중심의 개혁의식에 기초한 기존 분단체제론의 사유방식은 경계에 위치한 이방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분단체제론의 주된 논의는 분리된 정치체제 간의 구조적 상호관계성을 중시하면서도, 남한사회의 민주적 변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단현실의 극복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라는 체계적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타자로서 북한 출신 주민들의 실존적 경험에 접근하기 위한 실천적 시각과 태도를 요청한다.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분단체제의 실존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적 자아의 동질적 이해를 탈피해 개별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서 북한적 자아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필요성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타자중심적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주거지와 일터, 교육 현장 등 일상적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타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남한의 자아중심적 기준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타자성을 확대하고, 남북한출신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공생하기 위한 실천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 핵심어: 북한이탈주민, 분단체제론, 타자철학, 존재, 확대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970).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trichun@naver.com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sangwonlee007@gmail.com

## I. 들어가며

우리는 흔히 북한이탈주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칭한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장차 다가올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낮은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실은 남한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열악한 일자리,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 심리적 부적응 등 실로 많은 일상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여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공백이 존재한다.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감시와 배제가 함께 존재하며,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이 지속되고 있다(김학노 2018, 57). 오늘날의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분단체제가 생산해낸 이 낮은 경계인들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렵게 정착한 남한사회를 버리고 제3국으로 떠나거나, 다시 북한으로 입국하는 현상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분단체제의 현실과 논리를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의 분단은 남북한 정치제도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일상과 가치, 신념의 형성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김종엽 2014, 24; 33). 이런 상황에서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단지 북한출신의 동포라는 단선적이고 집합적인 인식구도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했다. 김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분단체제하에서는 이 속에서 형성된 개별적 존재들이 “온당하게 인정받지도, 그렇다고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김성경 2018a, 50). 이러한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남한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분단체제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남북한 인민의 연대를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그 속에는 여전히 체제론적 가설의 틀과 남한사회 중심의 논리가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다(백낙청 1998, 26-27).

분단체제론은 한반도 인민 전체의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주된 논의구도를 남한적 자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sup>1)</sup>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체제의 한계 극복과 더불어 이들 개개인이 처한 일상의 상황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 삶의 실질적인 개선은 분단체제론이 강조하는 남한사회의 정치사회 개혁, 시민역량 증대, 복지확대, 양극화 극복, 공정사회 구현 등만으로는 쉽지 않다(김종업 2014, 34-35). 북한이탈주민을 분단체제에 포섭된 동질화된 개인이 아닌, 특정한 체제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타자성을 지닌 개별자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sup>2)</sup> 이에 본고는 분단체제하의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데 타자중심적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 분단체제론의 인식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현실적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문성원(2007)의 연구는 분단체제를 이해하는 데 들뢰즈와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사유를 접목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단체제의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분단의 진정한 현실을 망각 혹은 외면한 비판적 사유는 분단체제 극복을 요원하게 만든다(백낙청 2006, 59). 본 연구는 단순히 규범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타자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분단체제의 현실 속 북한

---

1) '남한적 자아'는 분단이라는 상황이 생산해낸 또 다른 분리된 자아, 즉 '북한적 자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논하는 "자아"는 특정한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개인과 집단의 모습을 모두 함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분단체제가 생산해낸 '남한적 자아'와 '북한적 자아'는 서로를 온당하게 인정하지도 받지도 못한다고 본다.

2) 물론 개인 중심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분단체제론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존재성을 이해하는 것은 "국가보다 사람 중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 중심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보자"는 입장을 강조한 백낙청의 문제의식과 일정 부분 인식의 궤를 같이 한다(백낙청 2006, 179). 그러나 본 연구는 남한사회의 중심의 개혁의식에 기초한 기존 분단체제론의 사유방식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존재성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탈주민의 실존적 삶에 접근하기 위해서 타자중심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타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존재성을 동질적 체제론의 범주가 아니라 각자의 일상에서 다양한 욕망을 가진 개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론의 첫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동일한 체계 논리와 남한 사회 중심적인 맥락에서 논의한 분단체제론적 시각의 한계를 짚어본다. 두 번째 절에서는 타자 철학의 논의로서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환대와 공생에 대한 접근법이 분단체제 속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 이해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세 번째 절에서는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일상적인 경험을 다룬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함의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전반적 내용을 정리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 이해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학술적, 정책적 의미를 제시한다.

## II. 분단체제론과 북한이탈주민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 이해와 관련해 분단체제론을 논의하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단체제론을 포함해 한국 사회체계의 역사적 궤적과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 다양한 체제론이 존재한다.<sup>3)</sup> ‘체제’라는 구조적 개념과 논리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다루는 체제론들은 일정한 해석의 메커니즘을 부과한다. 이 점에서는 분단체제론도 예외는 아니다(모춘홍 2017a, 153). 분단체제는 해석에 따라 남북한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상위 체제로 볼 수도 있고, 각 사회 내에 작동하는 부분 체제로도 이해할 수 있다(손호철 2017, 156-157).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분단이 남북한 각각의 정치사회의 특성과 동학을 가능케 한 요인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분단이 남북한 인민의 삶에 미친 영향에 주된 초점을 두

---

3) 한국사회의 다양한 체제론에 대한 논의는 김학노(2018), 손호철(2017)의 연구를 참고할 것.

고 있다(신종대 2002). 박명림은 “상호 적대와 내부 통합의 비례적 병진”의 양상으로 분단체제가 전개됐다고 설명한다(박명림 2004, 247). 이는 분단이 한편으로 남북한을 이념적으로 멀어지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각각의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양상으로 전개됐던 것에 주목했던 것이다. 다만 냉전 종식 이후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반공주의를 견지”하는 논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있다(임지현 2000, 15). 이에 따라 기존의 적대와 경쟁 일변도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류준필 2009, 42).

이러한 담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단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단체제의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분단체제는 시기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치적 구조로서의 자생력을 갖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분단은 남북으로 분리된 각 체제의 정치적 목적과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내부통합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구갑우 2007, 52). 이렇듯 분단체제하에서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이라는 ‘경계(boundary)’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절합(articulation)’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2018년부터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적대적 분단체제로부터의 탈피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속에서 언젠가 하나의 인민으로 통합된 통일체제가 쉽게 이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분단체제의 현실이다. 이 문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는 남한사회 내에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김종균 2016, 4).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경계선적 존재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게 있어서 낯선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같은 이유로 이들은 분단극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중요한 개인들이기도 하다(김성경 2018a, 51). 그러나 남북한이 각기 경계를 사이에 두고 체제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단체제의 현실과 그 문제성을 각각의 체제 내부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용하게 한다(김학노 2018, 240). 이 분단체제의 주요한 당사자이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실질적 정체성을 규정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한사회에서 이들의 존재는 포용하고 환대하며 지내야 하는 이웃인 동시에 분노와 적대 감정을 불러오는 대상이기도

하다.<sup>4)</sup>

왜 이러한 문제적 현상이 발생하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분단체제론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남한사회의 현실이 결국 남과 북의 지배계급들이 분단의 구조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박영균 2016, 45-46). 이러한 체제론적 관점에서는 결국 분단에 의존하는 기존의 지배세력이 지탱하는 상위구조를 약화시키면 왜곡된 각 사회체제를 극복할 주된 계기가 마련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백낙청이 1992년에 분단체제론을 제출할 당시부터 제기됐다.

무릇 어떠한 체제건 그것이 '체제'라는 이름값을 하려면 일정한 지속성 즉 자기재생산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층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도 그 물질생활을 상당 부분 해결해주는 능력은 물론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수 없다. [...]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전제할 경우 이 체제의 하위체제에 불과한 현존 '2체제'는 상위체제의 변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백낙청 1992, 293; 306).

“한국사회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해 질적으로 변화하려면 한국사회 자체가 분단체제의 제약 속에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류준필의 주장도 백낙청의 주장과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다(류준필 2009, 47). 그러나 예리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단체제론에서 주장하는 변혁의 논리와 과제는 남한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기존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 극복을 한반도 인민들 모두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 상정했으며, 이를 실현하는 통일과정은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점은 다음의 백낙청의 주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4) 이런 측면에서 분단 트라우마의 가장 극심한 현재적 표출이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 자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김종균 2015, 276).

분단체제론의 개념들이 [...] 단순한 분단극복이 아닌 분단체제의 극복, 즉 아무런 통일이건 통일만 하고 보자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현재 한반도의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분단체제 아래에서보다 훨씬 나은 삶을 이룩하지는 것이 기본 취지다. 그러기 위해 각 분야의 시민운동이 곧 평화운동이 되고 통일운동이 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평화운동·통일운동이 시민운동을 겸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다(백낙청 2012, 14).

위의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분단체제론의 논리는 시민참여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 인민의 특이성과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새로운 시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존 분단체제론에서 강조한 분단극복의 필요와 과제는 남한적 자아의 욕구에 기반하고 있었다. 예컨대, “복지수혜자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가 극대화되는 ‘민주적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백낙청의 주장은 남북한주민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지만, 지극히 남한적 자아의 관점에서 욕망하는 체제개혁의 논리일 뿐이다(백낙청 2012, 25). 민주주의 심화, 시민역량 강화, 신자유주의 폐해 극복은 오늘날 남한사회가 처한 구조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지향해야 하는 주된 가치로 종종 상정된다. 그러나 이를 곧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혹은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가치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제 분단체제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남한사회 내의 심리적 분단 트라우마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실 물리적인 차원에서 분단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정서적 차원에서 분단의 현실이 만들어낸 심리적 경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예가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한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반공주의와 이것의 폭력성이다. 권혁범의 주장을 빌리면, 반공주의는 남한사회 내에서 개인들의 특정한 정치사회적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조건 반사의 기제를 형성해왔다(권혁범 2000, 55; 김종군 2016, 5). 이때 남한사회에 부과된 반공주의 트라우마에 의한 심리적 편견

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직접적 피해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모춘홍·김수철 2016, 120).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라는 한 논문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남한사회의 개인들은 이들을 온전하게 환대하지 못하고 있다(최윤희·김수연 2013; 김종군 2015, 305). 기존 분단체제 관련 연구에서는 남한사회 속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문제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체제론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문제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현실 문제 진단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존재가 보여주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모호한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이희영 2010, 208).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남한사회에서 만들어가는 한 개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삶이 그들에게는 분단의 실제적 양상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의 진정한 극복은 이러한 체제의 구조에 물든 개인적·집단적 자아의 자기탐구와 쇄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류준필 2009, 44). 이는 무엇보다 남한사회의 개인들이 지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단지 분단체제의 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된다는 추상적 가정에서 탈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달리 말하면, 분단체제론적 시각이 전제하는 체계론적 인식과 남한적 자아 중심의 개혁의지만으로는 북한출신 개인들의 독특한 존재성을 온전하게 환대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등 제3국의 경험까지 거치며 기존 분단체제론이 상정한 한반도 주민, 즉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체제적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중층적인 존재성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분단체제의 형성과 재생산 과정이 사람들에게 체험의 수준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인지도식과 행동양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김종엽의 주장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김종엽 2014, 24). 낯선 남한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정체성의 충돌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타자적 존재와 남한적 자아의 변화 가능성은 분단체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분단 현실 그 자체이다. 이하에서는 남한 중심적 사고에 기초한 기존의 분단체제론이 보여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자중심적 철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의 존재성을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 III. 북한출신주민의 타자성과 개별적 존재성에 관한 사유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은 체계나 집단성의 구조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닌다. 그들은 남한적 자아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이라는 폐쇄적 사회체제 속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자신만의 인격을 형성한 사람들이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은 각기 인간으로서 다양한 개인적 욕구와 취향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적 자아가 지닌 개별성은 기존 삶의 방식의 경계를 이탈하여 남한의 체제 속에 들어오면서 형성하게 되는 정체성과 혼종된다. 이렇게 중층적 차원을 지니고 변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개별적 존재성은 단순히 분단체제와 그 속의 민중들이라는 구조적 틀로 이해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앞선 절에서 논의하였듯이, 분단체제론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주민의 개별적 존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여한다. 분단체제론이 바라보는 한반도 인민의 존재성은 주로 북한주민의 개인적 독특성에 대한 이해보다, 각 체제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거시적 방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마저도 남한적 시각에서 정치적 기득권 타파와 각종 사회 개혁을 통한 민주적 시민역량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분단체제라는 현실 그리고 남한이라는 생소한 체제에 적응을 시도하는 북한출신 이방인이 지닌 타자성은 체제이론과 남한적 자아의 관점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못한다. 북한출신 개인들이 지닌 독특한 존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자성의 관점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청된다.

타자중심적 사유의 핵심은 존재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아의 인식 체계가 지닌 동질화의 경향으로부터 탈피하여 현실 속에서 존재자들이 보여주는 분리성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개인적 혹은 집단적 자아는 자아 외부의 '다름' 혹은 '차이'를 동일한 이성적 기준으로 환원시켜 자신만의 체계와 영역의 일부로 포착하려는 욕구를 지닌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자아의 동질적이고 내재적인 관점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적 틀의 변화가 아니다(Levinas 1969, 39). 타자중심적 사유로의 전환은 곧 자아가 다른 외부 존재자들에 접근하는 실존적 태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근현대적 자아가 담고 있는 인간 및 사회에 대한 이해는 개별적 존재의 다양한 가능성을 합리성과 객관성의 이름으로 어떤 동일한 전체 속에 포섭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Levinas 1969, 47). 분단체제론의 사유방식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라는 거시적 국가성의 범주 속에 인민들의 존재를 추상화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체제라는 더 거대한 체계 인식 속에 또다시 포섭된다(백낙청 2012, 148).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 분석은 그 이면에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시민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남한적 자아의 욕구에 기반한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특수성 그리고 국제체제와 분단체제의 연계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남한적 시각에 기반한 보편적 체제 인식은 그 이론 체계로 편입되지 않는 존재자들의 이질적 모습들을 놓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물론 분단체제론이 함의하는 남북 기득권세력의 적대를 통한 공고화와 민중 억압의 권력기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분단체제의 현실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박순성 2012, 19).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시각의 외부에는 남한이라는 낯선 사회체제의 삶의 방식에 편입되지 못하는 경계선적인 존재인 북한이탈주민들의 또 다른 현실이 있다. 남한이라는 이질적 삶의 방식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부적응의 문제는 단지 분단체제론이 상정하고 있는 일반적 민중의 삶과 남한적 자아의 합리적이고 개혁적 시각으로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

남한사회의 개인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적 삶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지 분단체제라는 구조 하에서 신음하는 동포인민들이 아니다. 그들은 남한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이방인 그리고 낯선 삶의 방식과의 접촉 속에서 개별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이수정 2014, 120). 오늘날 남한사회의 일상 속에서 북한출신 이방인과의 갈등은 분단체제론이 모색하는 시민참여와 통합, 복지 모델 등의 구축으로 단순히 해소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층적 삶의 경험을 지닌 개인들로서, 남한사회가 일방적 통합

을 추구할 때 그 속에 쉽게 동화될 수 없는 타자로서 존재한다. 즉 북한이 탈주민의 존재성은 남한이라는 민주공화국과 그 사회체제 속에 형성된 자아의 인식체제로 포섭되지 않는 무언가를 내포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북한출신이라는 독특성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이방인성과 타자성이 도사리고 있다(Derrida 2000, 87-89). 인간이라는 개별적 존재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다름을 내포한 타자들이다. 자아는 또 다른 자아와 근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분리성은 자아의 객관적 표상의 시도가 결코 다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적 차이와 다양성을 구성한다(Levinas 1969, 53). 분리된 존재의 타자성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적 세력이 강제적인 동질화나 전체화를 시도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지속적 저항을 추동한다. 이러한 타자의 저항은 개별자를 어떻게 특정 자아 내부로 포함할 것인가가 아니라, 타자를 ‘타자로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질문을 야기한다(문성원 2007, 50-51). 분단체제론에 있어서 남북한 인민들의 존재성은 각각의 개별성이 소거된 채 세계체제와 분단체제의 억압에 신음하는 민중으로 중립화되고 개념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질적 민중에 대한 규정은 남한사회 속에서 개별적 타자로서 살아가는 북한출신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궤적들을 동질적으로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인간 존재는 근원적 분리성에 기초해 차별화된 욕구를 발산한다. 이러한 존재자의 개별성은 이성적 동질화의 움직임이 규정할 수 없는 다원성의 현실을 드러낸다(Levinas 1969, 121). 이때 타자중심적 사유는 하나의 다원주의적 범주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내부로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자들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남한의 자아에게 북한으로부터 이탈한 존재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이방인이다. 동시에 북한출신 자아에게는 남한주민의 낯선 삶의 모습도 또 다른 차원의 타자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특정 국가나 사회체제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타자적 관계성 속에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개별적 욕구에 기반하여 삶의 향유를 추구하며, 그 와중에 남한사회 속 이질적 욕구의 개인들과 끊임없이 상충하며 타자성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이상원 2018, 39). 이러한 이방인들은 필연적으로 기존 체제의 정체성을 흔들

며 새로운 이질적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Derrida 2000, 35). 이는 분단체제의 현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앞 절에서의 분단체제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이 민주주의, 시민사회, 자본주의 등 남한적 자아가 설정한 특정한 개념 체계들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들은 남한적 자아의 내재적 욕구 및 인식 체계의 바깥의 실존적 현실을 드러낸다(Levinas 1969, 48-49). 이 현실 속에서 북한출신 개인들은 남한사회의 동질화 체계에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으며, 이때 남한적 자아는 일상에서 결코 동화될 수 없는 타자의 모습과 조우한다.

따라서 북한출신 주민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어떠한 체제적 논리를 적용하기보다, 그들이 타자로서 이러한 논리에서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현실을 살펴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한 개인으로서 남한사회 속 또 다른 개인들과 일상을 영위하는 실제적 양상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자아의 인식체계가 함부로 규정 짓기 어려운 타자의 얼굴(face)과의 마주함이다(Levinas 1969, 81). 다름에 대한 현실적 이해는 자아의 추상적 판단을 넘어 오직 타자와의 대면(face-to-face)이라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 비로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는 체제론적 시각보다는 남한사회 속에서의 일상적 관계맺음과 소통의 현실적 양상에 대한 철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한반도 인민의 삶에 대한 이해는 분단체제론의 일방적 적용 이전에, 분단체제의 현실을 구성하는 개별적 타자들의 일상적 경험에 대한 통찰에 기반해야 한다. 이때 남한사회에서 타자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대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타자와의 대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을 통한 교류와 대화의 지속적 경험이다(Levinas 1969, 98-99).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남한사회 속의 이방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또 다른 타자들을 마주하며 개인적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타자중심적 접근은 분단체제의 현실 속에서 변화되며 동시에 유지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성에 대한 일상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나아가 타자성의 문제의식은 남한사회가 어떻게 탈북민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공생할 수 있는 열린 시민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연계된다. 이러한 이론적 통찰은 남한적 자아의 타자에 대한 환대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지의 고민과 함께 제기된다. 남한적 자아가 타자에 대한 대면과 대화의 필연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지속적 인식전환은 결국 타자들 간 안정적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특정 법체계의 조건지음을 요청한다(Derrida 2000, 55). 여기서 분단체제론이 지닌 다양한 시민사회 개혁의 프로그램은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가 주장하는 것은 분단체제의 극복이 남한적 자아의 사회적 시선 외부에 놓일 수 있는 북한출신 이방인들의 개별적 삶과 존재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인민들은 결코 쉽게 동화될 수 없는 이방인들이다. 단지 남북한 체제가 각기 내재한 기득권 유지의 논리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개별적 자아들이 삶을 영위하는 존재 방식의 차이들이 분단상황의 실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타자성의 현실을 직시할 때, 남한사회 속 이방인들과 공생을 추구하면서 분단체제라는 제약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사회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타자들 간의 공생: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삶에 대한 연구접근법의 함의

타자성의 철학적 통찰에 기반해, 본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분단체제의 일상적 현실에 관한 접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사회 속에서 여전히 분단의 경계를 서성이는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다양한 타자들과 조우하며 어떠한 성격을 가진 개인(person)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북한이탈주민의 타자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다. 남한사회의 일상 속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적 자아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하고도 먼 이방인이다(김성경

2015, 95). 특히 우리는 이주노동자나 난민과 같은 외국출신의 이방인과 조우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다. 남한사회가 북한출신 이방인을 대하는 방식은 동질적 동포임을 강조하며 한편으로 그들의 존재성에서 ‘북한’이라는 표식을 지워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sup>5)</sup> 이런 상황에서 북한출신 이방인은 여전히 스스로의 개별성을 오히려 강화하며 남한사회의 개별적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복잡한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이방인으로서 남한의 개인들과 타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정체성의 충돌을 겪는 대부분의 경험은 일종의 ‘접촉지대(contact zone)’에서 발생한다. 프랫(Pratt)에 따르면 접촉지대는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권력관계에서 이질적인 문화와 정체성들이 만나고 충돌하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 다만 프랫이 제시한 접촉지대의 핵심은 비대칭적 관계에서도 문화적 약자가 지배적 문화에 단순히 동화되려하기보다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혼종적 문화를 구성해나가는 데 있다(Pratt 1991, 34; 2008, 8).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비대칭적 남한사회의 지배문화를 만나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상적 경험은 남한중심적 관점에 주목한 기존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작은 북한’이라고 불리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임대아파트 지역은 남북한출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며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접촉지대이다. 이 지역에서 남북한출신 주민들이 함께 삶을 영위한지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공간에서 남북한출신 주민들이 서로를 온당하게 인정하고 인정받는 데 많은 공역을 치렀으며, 지금도 많은 갈등과 타협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논현동 아파트 일대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의 원인은 남과 북의 서로 이질적인 공동체 주거 문화에서 비롯되는 면이 많다. 대표적으로 아파트라는 공간을 전유하는 방식에서 남북한출신 주민들의 차이

---

5) 물론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적 표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권적 대우’ 혹은 ‘특별한 환대’를 요구하고 있다(모춘홍 2017b, 25).

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경쟁적 일터에서 벗어나 사적인 시간만큼은 침해 받고 싶어하지 않는 남한적 자아에게 입주자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아파트의 다소 폐쇄적 주거 양식은 안온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의 사적인 안온함이 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사교와 친근성을 중시하는 북한적 자아에게는 불편하고 낯설 수 있다. “집단생활은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에 비할 바 없이 귀중하고 보람찬 생활”(사회과학출판사 2010a, 132)임을 강조해온 북한의 집단주의적 원칙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남한적 자아의 폐쇄적 주거 문화가 집단생활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주의적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남한출신 이웃을 자신들이 교화함으로써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서로간에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기 쉽다(사회과학출판사 2010b, 221). 그러나 남한의 주거문화를 탈피하여 아파트 속에서도 서로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북한출신 개인들의 이웃을 향한 요구가 남한출신 주민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이수정 2014, 99-103).

물론 남과 북의 주민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통일동산을 함께 가꾸고 조성하면서 서로간의 문화적인 이질감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3/9). 그러나 접촉지대로서의 논현동 임대 아파트의 주거공간에는 여전히 말투, 생활양식 등의 차이로 인해 남북한출신 주민들 서로간의 심리적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KBS 2016). 그들은 마을 공동체적 삶의 가치의 중요성을 믿고 유지하려 하지만, 종종 이를 의심하는 남한출신 개인들로부터 불편한 시선과 냉대를 받기 쉽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북한적 정체성을 지우고 밀어내기도 한다(이수정 2014, 117-121).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 주민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남한의 주류 문화에 일방적으로 편승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기도 한다(문성훈 2014, 95). 즉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작용하는 아파트의 일상 속에서 북한출신 주민들은 원래 스스로가 지닌 공동체적 신념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감추기도 하는 복합적 적응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과 북 주민들의 일상적인 교류와 단절이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

인 접촉지대인 ‘일터’에서도 북한출신 주민들과 남한출신 주민들 간에 이질적 관계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북한이탈주민들을 대하는 남한사회의 태도는 냉전적 규율과 반공의식에 기초했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적 인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임금노동자로 특정 기간 이상 노동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남한사회 정착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김성경 2018b, 48-54). 그러나 경제적 ‘교환’관계를 바탕으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다소 낮은 인간관계 형성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어려서부터 “얼마만한 보수를 전제로 하여 동지를 믿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국 일정한 량의 보수와 대가에 동지적 관계를 귀착시키는 행동”(사회과학출판사 2010, 161)이라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출신 동료들은 일상적으로 여전히 이들을 경제적으로 홀로서기 힘들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성가신 집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이는 북한출신 동료들의 저항감을 야기한다(전주람·신윤정 2018, 53-56).

또 다른 한편, 시장논리를 그릇되게 수용해서 행동하는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의 도움과 지원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기도 한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지원금을 사업주와 공모하여 착복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재임대하는 경우, 종교 및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착복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김성경 2018b, 61-62). 이렇듯 ‘분단’이라는 맥락이 개인들의 다양한 욕망과 개별적 이해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남한사회의 경제적 생활에 저항과 타협을 해오고 있다(모춘홍 2017b, 22-23).

다른 한편 지표상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사회의 무시 혹은 차별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직장동료와 친구 등에 대한 신뢰도가 62.2%로 낮지 않게 나타났지만(남북하나재단 2017 286),<sup>6)</sup> 많

6) 2016년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차별이



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전히 일터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무시 혹은 차별당하고 있다고 말한다(모춘홍 2017b, 27).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시 혹은 차별당한다고 느끼는 감정은 남한적 자아의 기준으로는 낮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 일터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가 펼쳐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출신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단의 경계에 처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나도 그들과 회식이 아니더라도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일 끝나면 가고 나는 혼자 남겨지고 그냥 집에 가요”라고 말하는 40대 중반의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말에는 남한사회의 경제적 삶 속에서도 친교를 갈망하는 북한적 자아의 개별적 욕구가 담겨 있다(모춘홍 2017b, 27).

이러한 북한적 자아의 욕망은 남한적 자아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타자성이 존재한다. 도시의 번잡한 삶이 버거운 남한적 자아에게 일과 이후의 시간은 더 이상 사교가 불필요한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일 수 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통해 어울려야만 하는 한 사회의 개인들로서 남북한출신 직장동료들은 서로가 지닌 타자성을 수용하고 대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 문화를 무조건 이질적인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회사 내의 친목모임 등의 조직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 또한 남과 북 출신의 학생들 간의 일상적인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영역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이 탈북청소년

---

나 무시를 당한 경험 유무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75.5%, ‘있다’는 응답이 24.4%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차별이나 무시당한 이유로 ‘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7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부정적 인식(42.5%)’ 등을 들었다는 점을 보면, 여전히 이들이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남북하나재단 2017, 225-231).

교육과 학교적응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탈북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대안학교에 진학하고 있다.<sup>7)</sup> 현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은 동질적 통합과 생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들이 이방인의 특성을 지니고 어떻게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지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NK News 17/1/12). 남한의 교육과정과 달리 탈북청소년들은 유년기부터 당정책 위주의 북한 교육에 익숙한 채 낯선 사회에 들어온 경우가 많다.<sup>8)</sup>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개별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교육체계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지에 주된 초점을 둔다. 또한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속에 심각한 심리적 허약과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탈북 트라우마 심리치료 교육과정이 전무하다(양계민·황순택 2008, 334-337).

이런 상황에서 남한출신 학생들은 북한출신 또래 친구들의 이질성을 대면하고 맞이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이에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탈북이동생활공동체 ‘우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마석훈은 “요즘은 탈북학생들이 남한에 흡수되어 모두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있다. 탈북학생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왕따가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니까 북한에서 왔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마석훈 인터뷰 2018/8/24). 차후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탈북청소년 개개인의 개별적 존재성이 이미 학교에서부터 남한의 또래 집단들로부터 환대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분단체제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학교 교육은 기초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

7) 탈북청소년들은 일정 기간의 ‘분리교육(segregated education)’을 통해 추후 일반학교와의 ‘통합교육(integrated education, inclusive education)’에 필요한 예비교육 및 ‘디딤돌 교육(step-stone education)’을 받고 있다(전현준 외 2016).

8) 북한 사회주의 교육은 근간은 “학생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어 모든 학생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깨닫고 당정책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16).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 속 당당한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마석훈은 대안학교가 탈북청소년들이 “일반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해가지고 막 상처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탈북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다니면 북한과는 상이한 학습환경, 생활환경이 낯설고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안학교에서 탈북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교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스스로의 존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고립된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은 차후 이들이 남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공생을 구성하는 데 장애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탈북대학생들이 토로하는 생활의 고민 중 상당 부분이 남한출신 대학생들과 일상에서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일례로 탈북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의 난관으로 꼽는 항목은 단연코 ‘팀별활동’ 영역으로 무려 35.5%로 나타났다(김석향 외 2016, 73-7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마석훈의 지적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는 탈북청소년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눈에 낯선 타자인 남한사람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의 과잉보호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북한출신의 이방인들이 익숙치 않은 남한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소년 각자가 분단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낯선 타자를 환대하고 이들과 공생하는 일상적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그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남한출신 개인들과 차라리 “부딪치며 적응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힘들더라도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게 낫다고 말한다(신동아 2008/1/9).<sup>9)</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탈북청소년들은 분단체제의 제약을 받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분단체제 극복의 미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좋은 재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다가올 통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름의 출신배

9) 마석훈은 “나는 내가 키운 애들은 대안학교를 안 보낸다. 나는 남한의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는 거로,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는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마석훈 인터뷰 2018/8/24).

경을 숨기지 않고 북한적 자아가 지닌 개인성과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공생의 가능성은 단지 통합의 유도만이 아니라 남한적 자아가 북한출신 개별자의 타자성을 자연스레 대면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할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김학노 2010, 42-43).

위에서 살펴본 3가지 사례는 남한의 시민적 삶의 기준 바깥에 위치한 타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존재 방식을 바라보는 연구접근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남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단체제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선, 남한적 자아가 쉽게 포착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방인적 삶의 맥락 속으로 깊이 다가가야 한다. 이러한 타자중심의 접근법은 북한출신 주민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내재적인 방법론을 주장하지 않는다.<sup>10)</sup> 다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맞아들이고 대면해야만 하는, 개별적 욕구를 지닌 인격(person)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경험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민족주의적 공감, 민주시민교육, 사회경제적 지원의 대상으로 해석하기 전에, 다른 삶의 방식 속에 뛰어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로 우선 바라보고 맞이할 필요가 있다. 남한사회의 낮은 삶 속에서 그들은 남한출신의 또 다른 이방인들과 충돌하며 새로운 개인성과 의식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단순히 민주적 역량 강화나 새로운 복지 모델의 제시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방인 간의 충돌은 서로 다른 문화의 중층적 경험 속에서 이질적 삶의 방식을 추구해온 개별적 존재들이 보여주는 공존의 근원적 양상이다. 그러므로 남한적 자아의 합리적 범주화에 그들을 맞추기보다, 이에서 벗어나는 개별적 존재로서 북한출신 주민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포착하려는 실천적 태도에 대한 지향이 논리적 범주 구성에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타자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족주

---

10) 그러나 이러한 타자중심적 사유가 기존 분단체제론의 거시적 문제의식과 현실적 성과를 단순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의 등 특정 개념들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삶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의 한계를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분단체제 하에서 인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억압되고 배제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의 이해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타자들과 조우하는 일상적 경험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분단체제의 이해는 경계선적 상황에 처한 타자를 객관적으로 대상화하는 과정에 내포한 한계와 왜곡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이질적 삶의 경험을 통해 나뉠의 자아를 형성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만의 사회체제로 완전히 동화되기 어려운 타자이다. 결국 남한사회의 주민들은 그들의 일상적 삶에 편입된 북한출신주민들의 존재 앞에서 영원한 주인일 수 없다. 남한의 개인들은 북한출신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방인으로서 하나의 법체제 속에서 공생해야 할 존재들이다. 물론 흔들리는 분단체제 속에서, 이들은 모두 한반도의 인민이자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동질적 주체로서 규정될 수 있다(백낙청 1998, 26).

그러나 앞선 사례분석에서 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낯선 체제 속에서 적응하며 개별적으로 겪는 실존의 모습은 실로 다양한 욕구의 발현 속에서 기존의 체제 인식을 끊임없이 벗어난다. 따라서 북한출신 주민들의 개별적 삶을 분석하는 데 있어 거시적 체제론의 시각을 벗어났다 해도, 미시적 차원의 또 다른 범주와 대상화에 기반한 이론과 방법론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그들의 미시적 생활세계를 분석 주제로 삼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분석적 틀만으로 현상을 이해할 경우 자아중심적 관점에서의 환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정치체제와 그 속의 개인적, 집단적 자아는 그 경계 밖 타자들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맞닥뜨려야 한다(Hahm and Kim 2015, 17-32). 따라서 자아와 타자 간의 안정적 관계의 지속은 일방향적 이해와 개념화의 시도 이전에, 우선 낯선 존재들을 향한 실천적 대면을 지향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특정 법체제는 종종 합리성의 이름으로 타자에 대한 강제적 규정을 시도하게 된다(Derrida 1992, 13). 그러나 이는 결국 특정 정체 하에서 존재가 지닌 근원적 문제성의 발현으로서, 타자에 대한 열림과 법체제의 경계지움 사이의 필연적 긴장성의 모습이다(Derrida 2000, 65; 이상원 2017).

이 속에서 남한의 자아는 자신의 사회체제 내로 아무리 포섭하려 해도 쉽게 동질화 될 수 없는 타자의 분리된 현실과 조우할 수밖에 없다. 동질적 사회체제는 언제나 타자를 향한 통합의 시도를 지속하지만, 이는 언제나 개별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Levinas 2001, 98).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체제 하에서의 삶에 대한 이해는 선불리 같은 동포로만 규정될 수 없는 그들의 타자성, 즉 개별적 욕망과 존재방식을 직시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타자와의 진정한 마주함은 억압구조의 일부로만 민중을 뭉뚱그려 개념화하는 환원론의 극복을 의미한다(백낙청 1998, 27).

제 아무리 민주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특정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정체에 익숙해진 자아는 또 다른 사회문화체제 속에 길들여진 이방인의 존재 방식을 쉽게 맞아들이기 어렵다(Kant 1996, 328-329). 인간의 타자성이 드러내는 환대와 적대의 모순적 공존은 분단체제의 형성 이전에 선재한다. 그리고 남북한사회가 처한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타자와 이방인성의 문제는 더욱 복잡적이고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인천남동구와 또 다른 밀집 거주지역에서 남한출신 주민들과 갈등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어떤 북한출신 주민의 일상적 삶의 모습은 남한적 자아가 겪었던 “분단체제의 에토스”만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다(김종엽 2014, 34-35). 이 문제적 상황은 직장에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북한출신 동포들과 조우하며 기존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남한출신 타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일과 이후의 삶에서 서로가 타자로서 분절적 상호작용을 겪고 있는 남한출신 주민들과 북한출신 주민들은 친화와 배제, 욕망과 좌절의 모순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방인으로서 분단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변주하고 있다. 미래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설립된 탈북민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맞닥뜨린 남한사회의 경쟁구조는 이들이 차후 개인으로서 겪어갈 많은 일상적 어려움을 교육제도 안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미래 한국사회의 남한출신과 북한출신의 개인들은 이렇듯 다차원적인 일상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타자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욕망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존재성에 관한 이해를 위한 접근법으로서 타자중심의 사유를 제기하고자 했다. 특히 분단의 현실을 다루는 주요 담론인 분단체제론이 깊게 내재한 체계이론의 논리와 남한 자아중심적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최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타자적 접근법이 보여줄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였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분단체제론이 그간 보여준 이론적 성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일각에서 쉽게 비판하는 것처럼, 분단체제론이 단순히 모든 문제를 분단 문제로 수렴시키는 모호한 거시적 담론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분단체제는 엄연한 현실이며, 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한국사회와 북한사회는 지속적 불안정성을 노출하며 분단현실의 왜곡을 내외부로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이들이 남한이라는 낯선 공동체 속에서 경계선적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기존의 인식적 틀을 벗어나 좀 더 세밀하게 분단체제의 현실을 사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때 분단체제론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체제,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중, 연대 등의 기본적 개념과 문제의식은 현실 접근에 있어 한계를 드러낸다. 물론 분단체제론이 보여주는 한반도 기득권세력의 모순성 비판과 시민사회의 역량 증대, 복지모델의 제시 등은 중요한 현실적 함의를 지닌다. 분단체제론은 또한 북한체제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현실적 입장에서 서 있다. 그러나 체제론의 통합적 범주와 기준으로 재단된 한반도 민중의 존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일상적 삶에서 보여주는 타자성과 이들이 지닌 개별적 존재성을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새로운 정체를 찾아 경계를 이탈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속에서 각기 다른 취향과 욕구를 표현하는 독특한 개인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분단체제론의 범주 하에서 동질적 인민으로 익명화된 존재는 더 이상 살아 숨 쉬는 개별적 욕구를 지닌 타자가 아닌, 남한적 자아의 관점에서 재현된 추상적 표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실존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체계의 일부로 이들을 선불리 규정하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로 이

해하기 어려운 타자이자 독립적 개인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남한의 자아가 나름의 합리적 인식 체계를 동원해도 쉽게 통합해낼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독특한 삶의 방식은 이러한 타자중심적 사유와 태도의 경험 속에서 비로소 그 생생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현실 속 타자는 결국 자아의 영역에 쉽게 포섭될 수 없는 분리성과 다양성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 남한이라는 특정한 민주시민사회의 틀 속에서, 남한출신의 개인들과 북한출신의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공존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체제 대립의 분절 속에서 각기 다른 경계 속에 처했던 자아들은 일상 속에서 서로 이질적 삶의 방식과 욕구를 지닌 이방인들로서 조우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제3국 등 여러 경계들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이 지닌 중층적 타자성은 남한의 자아들이 이를 동질화하면 할수록, 쉽게 통합을 이루기보다 저항과 배제의 역동적 관계성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기존의 남한적 자아와 사회체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이고 이질적 삶의 모습은 타자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환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이 드러내는 타자의 민낯은 단순히 같은 동포로서 북한정권에 신음하는 분단체제의 일원 혹은 남한이라는 민주사회의 새로운 시민이라는 고정적 범주와 관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들은 남한적 자아의 이성적 기준에 따른 동화 대상이 아니라, 나름의 개별적 존재성을 유지하며 이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생생한 일상적 욕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체제극복과 연대구성의 시도에 앞서,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남한적 자아 스스로 직면하고 소통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비로소 남한적 자아는 분단 체제를 통한 일상의 굴절과 왜곡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실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법체제와 신중한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선적으로 남한출신 개인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가 대면할 기회를 통해 각자의 차이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소통 기획을



통해 남한적 자이는 이방인들을 단순히 동화시키기보다, 상호적 관점에서 스스로가 지닌 이방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타자성의 경험 속에서, 남한의 개인은 북한이탈주민을 시민사회 속에서 주체적 욕구를 지닌 또 하나의 개인으로 환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진정한 민주적 공생은 낯선 존재들 간의 일방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서로의 다름과 개별성을 자연스레 대면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투고일 : 2018. 10. 31

논문심사일 : 2018. 11. 9

게재확정일 : 2019. 3. 5

## 참고문헌

-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 권혁범. 2000. “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 ‘분단 규율’을 넘어서기 위하여.”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 김석향·현인에·조영주. 2016. 『탈북대학생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서울: 남북하나재단.
- 김성경. 2015. “남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환대’의 권리와 의무.” 『현대사과장』 6권, 94-113.
- \_\_\_\_\_. 2018a. “분단체제에서 ‘사회’ 만들기.” 『창작과 비평』 통권 179호, 37-54.
- \_\_\_\_\_. 2018b.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문화와 정치』 제5권 제1호, 43-74.
- 김종균. 2015. “탈북민의 시기별 유형과 탈북 트라우마 유형.”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저. 『식민/이산/분단/전쟁의 역사와 코리언의 트라우마』. 서울: 선인.
- \_\_\_\_\_. 2016. “고통의 연대와 통합서사의 사회적 담론화 모형.”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저. 『분단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서울: 한국문화사.
- 김종엽. 2014. “‘사회를 말하는 사회’와 분단체제론.” 『창작과 비평』 제42권 3호, 15-37.
- 김학노. 2010. “정치,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1호, 31-57.
- \_\_\_\_\_. 2018.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남북하나재단. 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류준필. 2009.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아세아연구』 제52권 4호, 38-72.
- 모춘홍. 2017a. “영화 <그물>을 통해서 본 ‘분단체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화와 정치』 제4권 제3호, 149-175.
- \_\_\_\_\_. 2017b. “절반의 인정과 특별한 환대: 일터에서 벌어지는 남한사람과 탈북민의 상호계.” 2017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21-30.
- 모춘홍·김수철. 2016. “영화에서 재현된 탈북자들의 인정투쟁의 다면성과 조건: <무산일기>와 <댄스타운>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20권 1호, 117-150.
- 문성원. 2007. “해체와 윤리: 들뢰즈와 레비나스 철학의 사회철학적 함의.”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37-64.

- 문성훈. 2014. 『인정의 시대: 현대사회 변동과 5대 인정』. 서울: 사월의 책.
- 박명립. 2004. “한국분단의 특수성과 두 한국: 지역냉전, 적대적 의존, 그리고 토크빌 효과.” 『역사문제연구』 제13호, 233-270.
- 박순성. 2012.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분단체제론과 분단/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경제와 사회』 94호, 13-38.
- 박영균. 2016.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구축의 전략.” 『통일인문학』 제68집, 35-62.
- 백낙청. 1992.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20권 4호, 288-309.
- \_\_\_\_\_. 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파주: 창비.
- \_\_\_\_\_. 2006. “변혁적 중도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 서울: 창비.
- \_\_\_\_\_. 2012. 『2013년체제 만들기』. 서울: 창비.
- 사회과학출판사. 2010a. 『사회주의생활철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_\_\_\_\_. 2010b. 『주체의 철학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손호철. 2017.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신종대. 2002. “한국정치에 북한요인 연구: 1961-1972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계민·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2호, 333-358.
- 이상원. 2017. “데리다의 환대 개념의 정치적 긴장성: 고대정치철학적 해석과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4호, 5-23.
- \_\_\_\_\_. 2018. “이기성의 끝 그리고 환대: 레비나스의 타자개념과 경제적 존재성 이해.” 『철학 연구』 제57집, 33-64.
- 이수정. 2014.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17권 2호, 85-126.
-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207-241.
- 임지현. 2000. “파시즘은 살아 있다.”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 삼인.
- 전주람·신윤정. 2018. “남한출신 복지관련 종사자는 탈북 동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국사회복지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39-67.
- 전현준·신난희·엄현숙. 2016. 『학교 밖 탈북청소년 효율적 대안교육 방안』. 서울: 남북하나재단.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1977년 9월 5일)』.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최윤형·김수연. 2013. “대한민국은 우릴 받아줬지만, 한국인들은 탈북자를 받아 준 적이 없어요: 댓글에 나타난 남한사람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공공 PR의 과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5권 3호, 187-219.

Derrida, Jacques. 1992. “Force of Law: ‘The Mystical Foundations of Authority’.” In *Deconstruction and the Possibility of Justice*. Drucilla Cornell, Michel Rosenfeld, David Carlson eds. New York: Routledge.

\_\_\_\_\_. 2000. *Of Hospitality*. Rachel Bowlby tra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ahm, Chaihark, and Sung Ho Kim. 2015. *Making We the People: Democratic Constitutional Founding in Postwar Japan and South Kor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nt, Immanuel. 1996. *Practical Philosophy*. Mary Gregor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nas, Emmanuel. 1969. *Totality and Infinity*. Alphonso Lingis tran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_\_\_\_\_. 2001. *Existence and Existents*. Alphonso Lingis tran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Pratt, Mary. 1991.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33-40.

\_\_\_\_\_. 2008.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New York: Routledge.

마석훈 인터뷰 2018/8/24.

“명견만리: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KBS』. 2016/9/30.

“北이탈주민이 가꾸는 통일동산, 인천에 조성.” 『연합뉴스』. 2012/3/9.

“새터민 청소년 공동체 ‘우리집’ 원장 마석훈.” 『新東亞』. 2008/1/9.

“탈북 청소년들은 왜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가.” 『NK News』. 2017/1/12.

## Encounter with the Other: A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Being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Reality of the South-North Korean Division

Mo, ChunHeung

Research Professor, Hanyang Peace Institute, Hanyang University

Lee, SangWon

Research Professor, Hanyang Peace Institute, Hanyang University

### | ABSTRACT |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being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light of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 of the other. We argue that the previous discourses of the ‘Division System theory’ show a critical limit to understand the unique way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being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influential theoretical views of the “South-North Korean Division System” have focused on the democratic renovation of the South Korean society while illuminating the structural aspects of the political division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rapid increas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a current Korean society requires us to approach their existential reality of being as the other, which cannot fully belong to either regimes. In this ligh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othernes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their own desire and individual needs, without reducing it into the South Korean framework. We analyze three cases of the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space, workplace, and school) in order to describe concrete modes of approaching their being as the other; they are still strangers who must struggle and cooperate with the South Korean strangers, forming their own identities in a new society.

▪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Division System theory, the philosophy of the otherness, being, hospitality